

시린 가을 하늘에 흩뿌리는 선혈하!

단풍나무 이야기

단풍

너의 죽음이
국민장이 되는구나
기껏 여름 몇 푼의 그늘
엄격한 미비한데
화려한 장례식에
명산은 문상하느라
온 나라가 복새룡이다

(박기철)

단풍의 이유

이 가을에 한 번이라도
타오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
내내 가슴이 시퍼런 이는 불행하다.
단풍잎들 일제히
입을 앓다문 채 사색이 되지만
불행하거나 불쌍하지 않다.
단 한 번이라도 타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붉나무로
나는 단풍으로
온몸이 달아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무작정 불을 지르고 불 일이다.
폭설이 내려 온몸이 얼고
얼다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
합장의 뼈마디에 변적 혼불이 일 때까지.

(이원규)

산 전체가 요원(燎原) 같은 화원(花園)이요, 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峯峯)은 그대도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 산은 때 아닌 때에 다시 한번 봄을 맞아 백화(百花)爛爛한 것일까? 아니면 불의의 신화에 이 봉 저 봉이 송두리째 붉게 타고 있는 것일까? 진주홍(眞朱紅)을 함빡 빨아들인 해면 같이, 우러러 볼수록 찬란하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중략) 우리도 한 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행구 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 내릴 것만 같다.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 밑은 천인단애(千斷崖), 무한제(無限際)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혈(鮮血)처럼 붉다. 우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보단장(七寶丹粧) 같다.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 고나 할까. 수줍어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낫 붉은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정비석 <산정무한> 중에서



백담사 단풍나무

단풍의 꽃말은 '사랑'

더 이상 사랑 받지 않겠다는 의미

가을산의 진객은 단풍이다. 단풍이 없다면 가을산은 얼마나 스산하고 팍팍하랴. 생가와 진객이 빠져 버린 앞들을 보는 마음 또한 파사파사할 거다. 연륙의 새순이 여기저기서 태움음을 터뜨리는 봄 산, 질푸른 녹음이 꽃보다 화려한 여름 산, 치렁치렁 눈꽃 화관을 둘러 쓴 겨울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의 합창이 있기에 가을 산은 자랑스럽다.

단풍나무의 꽃말은 '사랑' (당신의 사랑을 받지 않으렵니다)이다. 이미 더 채울 것 없는 진홍이다. 덧

칠할 물감이 없으니 사양할 수밖에. 거기에 덧칠한들 무슨 색깔이 나오랴. 만취(滿醉)에 그저 자족할 뿐, 리필은 노랭이다. 단풍은 100% 만취상태다. 부족한 1%도, 넘치는 1%도 없다.

가을산에서 단풍나무를 만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부시다는 표현 따위는 역부족이다. 식어가는 가슴이 예열도 없이 울적 끊는다. 오래 전에 마신 에테르의 엑기스가 다시 살아나 가슴을 활활 태운다. 시린 가을 하늘을 향해 분수처럼 선혈을 뿜는다. 어찌자고 저렇게 무작정 불을 질러 대는가. 바라보는 눈길은 불길이 되어 가슴을 광광 친다.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과(丹楓科 Ace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키가 15m까지 자란다. 잎은 마주나고 5~7갈래로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의 끝은 뾰족하다. 꽃은 5월에 핀다. 한 꽃에 암술 또는 수술

물기 많아도 추위도 잘 자라지만

공해 심한 곳에서는 자라지 못해

만 있거나 2가지 모두 있다. 수꽃에는 수술이 8개, 암꽃에는 암술이 1개 있으며 암술머리는 2갈래로 갈라져 있다. 꽃잎은 암꽃과 수꽃 모두 없고 꽃받침잎 5장이 꽃잎처럼 보인다. 열매는 9~10월에 시과(翅果) / 열매의 겹집이 얇은 막 모양으로 돌출하여 날개를 이루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 흩어지는 열매. 단풍나무의 열매, 물푸레나무의 열매, 복장나무의 열매, 신나무의 열매 따위이다. 날개열매, 익과로 익는다. 우리나라 남쪽지방에서 주로 자라고 가을에는 잎이

붉은색으로 물든다.

잎이 1년 내내 붉은 종류를 홍단풍(또는 붉단풍·노무라단풍), 푸른 것을 청단풍,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수양단풍 등이 있다. 단풍나무는 반그늘 또는 그늘지고 물기가 많은 땅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도 잘 견디나, 공해가 심한 곳이나 바닷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낮술 취한 단풍이 가을을 흥건히 적신다. 만취로 온통 얼굴이 붉어도 비틀거리지 않는다. 낮술은 선비의 술, 양반의 술이다. 낮술에 취할 줄 아는 인사는 공해도 싫고 예의 없는 바닷가도 싫다. 피를 함부로 뿌리지도 않는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편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편문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원
 041) 943-6882 /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합을 보고 공합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공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해 합장